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IPA 유출

폐기물 차량 이송 중 2리터 흘러나와 … 제거작업에 30여분 소요

화성사업장의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에 이어 삼성전자의 또다른 사업장인 기흥공장에서도 1월31일 IPA(Isopropyl Alcohol)가 일부 유출됐다.

1월31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공장 8라인 건물 외부에서 IPA 2리터가 유출됐다. 기흥공장은 화성공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고 있다.

유출된 IPA는 반도체 장비나 병원 의료기기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며, 유독물질로는 분류돼 있지 않다.

유출되더라도 유관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다.

사고는 폐기물기업 직원 3명 IPA를 폐기물 자동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관을 통해 흘러나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알코올 제거작업에는 30여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학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1>